

## 19세기 한중 개신교 전도문서의 번역자와 번역태도 비교: 『訓兒眞言』(1865)과 『훈오진언』(1891)

이 고 은  
(한국학대학원)

### 1. 서론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개신교의 특성으로 인해, 개신교 선교는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으로 시작된다. 선교의 시대였던 19세기에는 유럽과 미국 출신 선교사들이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낯선 땅에 찾아가 그 곳의 문화와 언어를 배웠다. 한국의 경우, 조선에 한글로 번역된 복음서를 전했던 개신교 선교사는 중국 만주 지역을 담당하던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John Ross)였다.<sup>1)</sup> 조선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885년부터였고, 이들이 성경번역위원회(Committee for Translating the Bible into Korean Language)를

---

1) 존 로스는 이용찬, 백홍준, 서상륜 등 한국인 조사들과 함께 중문 성경 대표역본(The Delegates' Version, 1854)을 저본으로 삼아 『예수성교누가복음전서』(1882), 『예수성교요안니복음전서』(1882)를 번역, 심양의 문광서원에서 출판했다.

구성한 것은 1887년이였다. 이들은 신약부터 번역하기 시작하여 1911년에 성경 전권을 완역했다. 이처럼 성경 번역이 진행 중이던 개신교 전파의 초기 단계에서, 전도문서는 단권 복음서와 더불어 교리를 전파하는 데 큰 몫을 감당했다. 전도문서(evangelical tracts)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간략하게 설명한 소책자로서, 선교사들이 비신자에게 기독교를 소개하거나 초신자를 교육하기 위해 사용했다. 번역학자 나이다(Eugene A. Nida)가 구분한 종교텍스트의 두 유형 중 첫 번째, 즉 신앙의 양상과 실천에 관한 텍스트 유형에 속하며 신앙의 형성에 근간이 되는 경전으로서의 성경과 구분된다(최효은 2017: 233).

이러한 초기 전도문서는 먼저 중국에서 번역된 것을 후에 조선으로 들여와 한글로 재번역하는 경우가 많았다. 중국에서 미리 그 효용성을 검증받은 소책자들을 선택하여 식자층에게는 번역 없이 그대로 전달했고, 여성이나 평민을 위해서는 한글로 재번역해서 배포했다.<sup>2)</sup> 옥성득(1999)은 초기 한국 개신교의 전도문서들이 서구 신학을 일방적으로 소개하기보다 동양의 문화와 문학의 풍토를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번역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중국 개신교의 경험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밝혔다. 한문 전도문서에 반영된 중국적 사고에 한국적 사고를 덧붙임으로써 서구 신학의 일방적 도입을 여과할 수 있는 이중 장치를 갖추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때 전도 문서를 한글로 번역한 것은 선교사였을까, 한국인이었을까? 선교사가 전도 문서를, 특히 중국어 전도 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려면 한학자의 도움이 필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선교사와 동등한 “번역자”로 언급되는 경우가 드물며, 중국발 전도문서 대부분은 선교사들이 번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82-1900년에 발간된 기독교출판번역물의 서지사항에서 번역자 거의 전원이 외국인으로 조사되는 것이다(최효은 2016: 206). 이에 필자는 미처 조명 받지 못했던 한국인 번역자에 관한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문제는 일찍이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김양선은 초기 전도문서들이 대부분 선교사와 한국인 번역자의 공역으로 간행되었음에도

2) 한글로 번역된 중국발 전도문서의 목록은 Oak, Sung-Deuk (2013)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 p.322-325을 참고.

불구하고 실제 출판물에는 선교사의 이름만 반영되었음을 지적했다(조경덕 2012 재인용). 그에 따르면 공역자가 표기된 책은 ‘구세론’ 뿐이며 그 관련지에는 저자 마펫(Samuel. A. Moffet)옆에 “공역자 최명오 공역”이라는 표기가 있다(조경덕 2012: 523). 옥성득은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와 아펜젤러(Henry G. Appenzeller)가 이수정의 마가복음을 개정했던 작업을 두고, “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아직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번역은 거의 대부분 한국인 어학교사들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대한성서공회 1994: 201). 특히 천주교인이자 천주교 계열의 문서들을 번역한 경력이 있던 송순명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을 것이라고 보면서, “이 번역을 ‘언더우드 역본’이라고 칭할 때 그 배후에 있는 이러한 한국인 어학교사들의 기여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대한성서공회 1994: 201). 이덕주(1995)는 최초의 한글성경이었던 『예수성경전서』번역에 참여했던 의주 출신 초기 교인들<sup>3)</sup>과 1885년 이후 국내에서 성경번역에 참여했던 이들을<sup>4)</sup> 한국 기독교 문서 운동의 개척자로 평가하면서, 이들이 단순히 성경 번역의 조력자가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쳐준 ‘교사’였으며, 서양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를 우리말과 문화 속에 정착시킨 ‘토착화의 선구자’들이기도 했다고 평했다.

현자인 번역자가 숨겨진 문제는 중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대다수 한문 전도문서는 재중선교사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구술하면 문장에 뛰어난 중국인 조사들이 중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문체로 바꾸어서 작문하고, 이를 다시 선교사와 조사가 함께 검토하여 최종 원고를 만들었다(옥성득 1999, 오순방 2015). 이처럼 중국인 조사들은 번역문을 중국 문학에 적합한 문체로 다듬고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지만 이들의 역할은 선교사에 가려 드러나지 않았다(Lai 2015: 91). 중국의 번역학자 존 라이(John T.S. Lai)는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기독교 문서번역작업에서 중국인 번역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3) 이용찬·최성균·백홍준·서상륜·김진기·이성하 등

4) 송덕조·조성규·홍준·김정삼·이창직·문경호·정동명·이승두·송순용·김명준 등

### 1.1. 연구 방법과 대상

그렇다면 개항기 전도문서의 번역 주체 문제를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 원문과 번역본을 비교·분석하여 번역자의 태도를 이해하고자 한다. 번역자란 번역을 통해 두 언어와 문화의 간극을 연결하는 사람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문을 작성한 생산자와 번역물의 수용자 양 쪽을 모두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번역자는 그러한 과정에서 번역되지 않는 낯선 것들과 마주쳐 곤혹스러운 경우를 자주 겪는다. 양 문화 사이에 공통되지 않는 부분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문과 번역본을 비교하면서 번역자가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살펴보면 양 쪽 문화를 바라보는 번역자의 시선과 번역 태도를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번역의 주체를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19세기 말 중국과 한국에서 각각 번역되었던 영문 전도문서 *The Peep of Day*(1833)의 중역본(中譯本) 『訓兒眞言』(1865)과 한역본(韓譯本) 『훈〰진언』(1891)을 비교·분석했다. *The Peep of Day*는 원래 영국 교회의 4-6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인 주일학교 교재였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신체와 부모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영혼, 천사, 마귀, 이 세상에 대해, 성경 속 인물과 예수의 삶에 대해 총 53장에 걸쳐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수많은 영문 전도서 중 19세기 선교사들에게 가장 인기 있던 책이었으며, 1891년까지 영국과 미국에서만 804,000부가 발행되었다(Lai 2015: 153). 중국에서도 문어, 관화어, 광둥어, 푸저우, 닝보, 상하이, 쑤저우 등 다양한 방언으로 번역되었으며 점자책으로 제작되기도 했다(Lai 2015: 151).

필자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영문 원본-중역본-한역본을 모두 구할 수 있었다는 점과, 이들 번역본이 개항기 조선의 기독교 유입 과정과 경로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역본 『훈〰진언』의 내용이 원본 *The Peep of Day*보다는 중역본 『訓兒眞言』과 흡사하다는 점이 본 연구의 목적에 잘 맞았다. 만약 기존에 알려진 대로 서양 선교사가 한역본의 번역자였다면, 당연히 영문본을 원본(source text)으로 삼아 번역했을 것이고, 한역본의 내용이 영문본과 가까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중역본과 흡사하니 번역자가 선교사보다는 한국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마지막으로, 『훈〰진언』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였기 때문에 어휘 선택에 있어

서 도착화적 노력이 더욱 돋보일 수 있다. 성서 번역의 경우 원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 직역·축자역을 고수하지만 전도문서는 현지 문화에 적절하게 변용할 여지가 많고, 특히 『훈민정음』의 경우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였으므로 어휘와 내용선택에 있어서 더욱 변용의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했다. 따라서 『훈민정음』은 본 연구자가 제기한 번역주체 문제를 연구하기에 적절해 보였다.

## 1.2. 연구 범위와 개요

논문의 구성으로, 먼저 ‘누가 번역했는가?’의 문제를 풀기 위해 중역본의 번역자와 한역본의 번역자를 소개할 것이다. 기존에 한역본의 번역자로 알려진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번역에 참여했을 미상의 한국인 번역자에 관해 조사했다. 한국인 번역자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1차적으로 선교사들의 사역보고서와 서신을 조사했으며 한국 감리교교회사 서적도 참고했다. 다음으로는 번역자들이 ‘어떻게 번역했는지’ 그 태도를 연구하기 위해 영문 원본과 중역본, 한역본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1)용어 선택과 2)원문의 가감(加減)이었다.

연구를 위한 범위는 제 2장(모친이으히롤스랑흐논강론)과 3장(부친이으히롤기르논강론)으로 제한하였다. 전체 53장 중 특별히 이 부분을 선택한 이유는 서양과 동양의 부모-자식간 관계와 육아방식이 무척 다르므로 본문에 대한 번역자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나타나 번역자의 번역태도를 잘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기 때문이다. 번역자는 이러한 문화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도착화를 시도하거나, 아니면 원문의 내용이 낯설게 느껴지더라도 있는 그대로 전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번역자의 개입 여부와 역할이 두드러질 것이고, 따라서 번역 태도를 연구하기가 수월할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중국인, 한국인과 선교사를 ‘우리’와 ‘그들’의 대립구도로 상정하지 않았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동양과 서양, 제국과 식민지의 대립구도를 뛰어넘어 쌍방에 관련되는 것으로 서술하는 일이다(박흥규 2005: 37). 후대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시 선교사들이 제국주의

적 또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가졌든 아니든, 선교사와 중국인, 한국인이 공동으로 문서번역에 참여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들이 함께했던 번역 작업에는 분명 쌍방의 문화적 대립과 수용, 타협이 활발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그러나 선교사들의 서술과 언급에서 중국 및 한국인 번역자의 역할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배제되었고, 이러한 ‘상호작용’은 베일에 싸였다. 필자는 본 논문을 통해 그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표 1〉 서지사항 비교

비교항목	The Peep of Day	訓兒眞言	훈어진언
발행연도	1833 (초판)	1882 (1865초판)	1891(초판)
저자역자	Favell Lee Mortimer (1802-1878)	花撒勒, 周文源	Mary F. Scranton (1832-1909)
발행소	런던	上海美華書館	삼문출판사(서울)
규격쪽수	부록 포함 223쪽	240mm*140mm, 59쪽 <sup>5)</sup>	249mm*142mm, 46쪽
대상	영유아, 교회 주일학교용		여학교 교재, 여성 전도용
삼화	3rd Edition은 없음	있음	없음

## 2. 저자와 역자 소개

### 2.1. 영문 저자: 파벨 리 모티머(Favell Lee Mortimer, 1802-1878)

영국 잉글랜드 태생인 파벨은 바클레이 은행 공동설립자 데이빗 비번(David Bevan)의 딸로 태어나 1841년에 토마스 모티머와 결혼했다. 결혼 전 이름은 파벨 리 비번(Favell Lee Bevan)이었다. 모티머는 아버지의 영지였던 바넷 동부지역(Eastern Barnet) 아동의 기독교 교육을 담당했으며 당시 경험을 통해 기독교

5) 서양에서 출판된 책은 양면으로 인쇄하여 앞뒤로 쪽수가 붙지만 중국과 한국에서는 한 장의 긴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묶어내므로 한 쪽 면에만 쪽수가 붙는다. 결과적으로 쪽수가 반으로 줄게 되는 것. 따라서 영문판과 분량을 비교하려면 중역본과 한역본의 쪽수를 두 곱으로 계산해야 할 것이다.

교육용 교재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이 때 기존의 책 대신 플래시카드 형태로 교리서를 제작하여 가르쳤는데, 이를 위해 준비했던 노트를 책으로 엮어낸 것이 바로 *The Peep of Day*(1833)다. 모티머는 이 외에도 다양한 주일학교 교재와 아동용 세계사, 지리서, 언어 교재를 썼다(Lai 2015: 153). 모티머가 저술한 교재 대다수가 중국에서 번역·출판되었으며, 존 라이의 연구에서 그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Lai 2015: 291-93). 본 논문에서 사용한 판본은 런던에서 발행된 *The Peep of Day* 제 7판을 미국의 출판사가 1845년에 재판한 것이다.

## 2.2. 중역본 역자: 샬리 홀즈(Mrs. Sally Holmes 花撒勅)와 짜우웬유안(周文源)

필자가 입수한 중역본 『訓兒眞言』(1882)은 최병헌 목사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기증한 것으로, 본문 첫 장에 “美國花撒勅口譯 蓬萊周文源筆述”이라 쓰여 있다. 미국인 화살라이花撒勅가 영어 원문을 보면서 통역하면 중국인 조사 짜우웬유안周文源이 중문으로 받아 적었다는 뜻이다. 이 미국인 역자의 이름으로 표기된 화살라이는 샬리 홀즈(Mrs. Sally Holmes)의 중국어 음역이다. 미국 침례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홀즈 목사(J. L. Holmes)와 그 아내 샬리 홀즈는 1858년에 미국에서 파송되어 1859년에 상해에 도착했다(Cathcart 1881: 1081). 이들은 1860년에 산둥성에 들어가 중국 북방지역으로 선교기지를 확장했던 개척자들이었다. 그러나 홀즈 목사는 이듬해인 1861년에 중국 군인에게 살해당했다(Cathcart 1881: 1081). 당시 중국은 외국인 혐오 때문에 이처럼 선교사를 살해하는 경우가 있었다. 혼자 남은 홀즈 부인은 중국에 남아 열정적으로 교육과 문서 출판에 헌신했으며 *The Peep of Day*를 여러 차례 출판했다(Cathcart 1881: 1081). 이 책은 산둥지방 소재 기독교에서 교재로 사용되었다.

중국인 번역자 짜우웬유안(周文源)은 산둥지역의 명망 있는 학자였다. 샬리 홀즈와 함께 이 책을 번역하면서 중국식으로 문체를 다듬고 내용 또한 중국 문화에 맞도록 길들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Lai 2015: 169). 등저우 지역의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중국어 교사로 일하다 1866년 과거 시험에 합격한 이후로는 기독교 신앙을 저버리고 유교 제사에 참여하며 학생들에게 “이단”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Lai 2015: 157). 그런 이유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짜우웬유안은 『訓兒眞言』 표지에 공역자로 이름이 올라있지만 당시 발행

된 기독교서적 목록에는 샬리 홈즈만이 번역자로 명기되어 있다(Lai 2015:157).

### 2.3. 한역본 역자: 메리 스크랜턴(Mary F. Scranton, 1832-1909)과 무명의 한국인

스크랜턴 여사는 한국에 최초로 파송된 여성 선교사이자 이화학당의 설립자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의 전통 있는 감리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이라스투스 벤튼(Erastus Benton)과 남동생, 조카도 미감리회 목사였다(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233). 1855년에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T. Scranton)과 결혼 후 1872년에 사별하였고, 미감리회 해외여성교회 연회 서기로 봉직하다 1885년에 선교사로 파송 받아 6월 20일에 내한했다. 이 때 외아들 윌리엄 스크랜턴(William B. Scranton, 1856-1922) 내외와 함께 파송받았는데, 의사였던 윌리엄은 제중원에서 활동하다가 이듬해인 1886년 정동에 진료소를 차렸다(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237). 어머니인 스크랜턴 여사는 정동에 한국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을 설립하고 여성병원인 보구여관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문맹 퇴치 활동과 의료사업을 펼쳤다(이경숙 외 2010: 6).

한국에서 대부인(大夫人)으로 불렸던 스크랜턴 여사는 버림받고 소외된 소녀들을 양딸(adopted daughters)로 맞아들여 교사와 전도부인으로 훈련시켜 여성 지도자로 키워냈다. 이를 위해 시급했던 것이 ‘한글 전도문서’였다. 한글은 조선시대 양반 지식인층이 ‘암글’ 또는 ‘언문’이라며 천대했었는데, 이처럼 ‘여성의 글’로 인식된 한글을 통해 전도 문서를 만들어 여성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당시 여성교사들의 핵심 과제였다(이경숙 외 2010: 94). 스크랜턴 여사는 1889년 선교 보고서에서 한글 기독교문서 출판이 얼마나 시급한지 강조하면서 한문을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을 요청했다.

저는 ‘중국어[한문] 번역가와 필사자’를 요청드렸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선교사들이 사역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나 사전, 문법서 없이 사역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람들 손에 쥐어줄 전도지 한 장조차 없습니다. 때로 중국어 자료를 얻기는 하지만 고등교육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읽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책을 번역하거나 출판할 필요가 명백해지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제 그런 사역이 시작되었습

니다. 선교부에 소속된 선교사 한 명이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수행하고 남은 시간에 그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는 이 방면에 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로 돕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미국에서 배포하는 작은 전도지의 가치를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시니 제가 한국 여성과 소녀가 읽을 만한 무언가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아실 겁니다. 책 한 권이나 전도지 한 장은 우리[선교사]가 가지 못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5-1940* 1889: 66).<sup>6)</sup>

이처럼 당시 여성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는 한글로 된 전도문서가 긴급히 필요했다. 『훈민정음』은 이러한 배경에서 번역되었다. 이때 번역된 한글 전도문서들은 우선 이화학당 교재로 사용되었고, 이후 전도부인들을 통해 보구여관과 여성 교회에서 전도용 책자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스크랜턴 여사가 이 책을 직접 번역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앞서 보았듯이 스크랜턴 여사가 중국어 번역자를 요청했다는 점은 그녀가 번역할 수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또한 당시 이화학당 교사이던 로드와일러가 1891년에 작성한 연차보고서에는 “스크랜턴 부인이 *Peep of Day*를 출판하고자 준비했고, 그 책은 지금 인쇄 중입니다. 저희는 그 책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5-1940* 1891: 66)<sup>7)</sup>”란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6) I have asked for a ‘Chinese translator and copyist.’ In this country your missionaries work at great disadvantage. They were obliged to begin without a Bible, without dictionaries or grammars, without even a leaflet which could be put into the hands of the people. We can get now and then something in Chinese which can be read by a few of the highly educated only. Of course this makes it clear that books must be made or translated. This work has been begun; one member of the Parent Board is devoting all the time which can be spared from his other duties to this branch of work. We are trying in our society also to do the little which we can to help along this line. You, who so thoroughly appreciate the value of the little leaflets you scatter in America, cannot wonder that I am intensely desirous that the women and girls of Korea shall have something to read. A book or a tract can go where we cannot.

7) Evangelistic work of a slightly different nature has been undertaken also. Mrs.

“준비했다”는 말은 스크랜턴 부인이 직접 번역했는지 아닌지를 밝히지 않는 애매한 표현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회사학자 이덕주(2014)는 스크랜턴 모자를 연구한 방대한 저술 『스크랜턴』에서 메리 스크랜턴이 1891년에 『훈오진언』을 어학선생의 도움을 받아 한글로 번역, 출판했다고 기록한 바 있다.

필자는 영문 원본 *The Peep of Day*와 훈아진언의 중역본, 한역본을 비교해 본 결과 한역본 『훈오진언』은 영어가 아닌 중역본을 원본(source text)으로 삼아 재번역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스크랜턴 여사가 번역자라고 주장하기는 어렵다. 조선에 온 지 3-4년이 남짓한 1889년에 스크랜턴 여사는 한국어도 서툴러 설교하거나 강의하기에 무리가 있었고, 이를 대신해줄 토착인 교사를 채용하고 있었다(이덕주 2014: 212). 여사가 1896년에 남긴 회고록에는 선교 초기에 언어습득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술회하는데, 조선인에게 다가가 말을 붙일라치면 그들은 외국인을 보고 공포에 질려 문을 닫고 병풍 뒤에 숨어버렸으며, 책도 없고 선생다운 선생도 없고, 통역이라고는 간단한 단어밖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대한성서공회 1994:192). 이러한 상황을 볼 때 내한한 지 4-5년 되는 시점에 그녀가 한문을 저본삼아 한글로 번역했을 리는 없다. 무엇보다 『훈오진언』이 초판된 1891년에 스크랜턴 모자는 1년 반 동안의 안식년으로 미국에 있었고, 이듬해에 귀국했다.<sup>8)</sup> 아들인 윌리엄 스크랜턴 박사의 1890년 11월 서신에 의하면 스크랜턴 여사는 당시 심각한 질병 때문에 치명적인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가(recovering from a secured and almost fatal attack of La Grippe) 막 회복하였으며, 따라서 스크랜턴 의사는 어머니와 딸의 회복을 위해 선교본부에 안식년을 요청하고 있다(Hanguk Gidokkyo Yeoksa yeonguso 2010: 937). 그러므로 스크랜턴 여사가 이 책을 번역했다는 주장은 오류라 할 수 있다.

*Scranton had it ready for the press, and it is now being printed, Peep of Day, from which we look for good results.* [밑줄은 필자 강조]

- 8) William B. Scranton은 연례보고서에서 자신이 미국에서 1년 반 동안의 안식년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날이 1892년 5월 21일 토요일이었다고 밝히고 있다(“We arrived in Seoul on our return from the United States, Saturday, May 21, of this year.... When I left Korea a year and a half ago, I assure you truly, with a sad and not a glad heart....”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92: 59-60).

그렇다면 증역본 『訓兒眞言』을 한글로 번역한 사람은 누구인가? 스크랜턴 부인의 어학선생이나 이화학당 또는 배재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친 선생이 유력한 후보이지만, 이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부족하다. 선교사들은 한국인과 공역 또는 한국인이 번역한 것을 감수했을 뿐이라 해도 ‘번역자로서’ 한국인 조사의 역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현재 연구자들의 자료가 되는 선교보고서와 서신에서는 이들에 대한 언급이 없다. 아래에서는 지금까지 발견한 자료를 토대로 한국인 번역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을 소개한다.

### 2.3.1. 이화학당 여교사 - 이경숙(Drusilla Yi, 1851-1930)

이경숙은 충남 홍주에서 가난한 선비의 딸로 출생하여 10대에 결혼했으나 실패하고 서울에 올라와 바느질과 빨래로 연명하던 중 메리 스크랜턴을 만나 개종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경숙 친구의 남편이 스크랜턴 부인의 어학교사였기 때문에 그가 부인에게 이경숙을 소개하여 만남을 주선하였다. 개종 후 ‘드루실라(Drusilla Yi)’라는 세례명을 받아 선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드루실라’로 불렸다. 39세에 스크랜턴 대부인의 수양딸이 되어 대부인의 개인적 집안일을 돕는 외에 이화학당에서 언문(한글)과 한문까지 가르쳤다(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2002: 330-331). 그녀가 스크랜턴을 만나고 이화학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1890년 4월의 일이었다(Noble 1927: 16). 이후 1897년에 스크랜턴 부인이 안식년을 마치고 돌아와 이화학당에서 손을 떼고 상동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는 스크랜턴부인과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며 기독교 책자를 판매했다. 『훈〇진언』이 여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쓰였다는 점, 그리고 이경숙이 이화학당에서 한글과 한문까지 가르친 교사였다는 점, 스크랜턴 부인과 가까이 지냈으며 일생을 전도사역에 헌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훈〇진언』을 번역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 2.3.2. 스크랜턴의 어학교사 - 박승면

스크랜턴은 언더우드나 존스 같은 다른 선교사와 달리 보고서나 서신을 쓰면서 어학교사에 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조선에 입국하기 전, 스크랜턴 모

자가 일본에서 박영효에게 조선어를 배웠고 답례로 박영효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었다는 기록만이 존재할 뿐이다(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2010). 이때의 어학교육이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에 입국한 뒤 어학교사로 확인되는 것은 박승면인데, 그나마 스크랜틴이 아닌 아펜젤러의 일기에서 언급될 뿐이다. 아펜젤러는 1888년 1월 13일에 스크랜틴 의사의 개인교사인 박승면과 배재학교 학생 문세익에게 세례를 베풀었다고 기록하였다(이만열 1985: 317). 일본에서 스크랜틴 모자가 같은 어학선생에게서 수업을 받은 점으로 보아 조선에서도 박승면 한 사람을 어학교사로 고용했을 수 있다. 그리고 이경숙이 스크랜틴 대부인에게 소개된 경로에서 스크랜틴 대부인의 어학교사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대부인의 어학교사로 있었던 이경숙의 친구 남편이 이경숙을 대부인에게 소개하는데(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 2002: 330), 즉 대부인의 어학교사가 남성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가 박승면일 수 있다고 짐작된다. 박승면이 메리 스크랜틴의 어학교사였다면, 그가 중역본을 한글로 번역했을 가능성이 있다.

### 2.3.3. 배재학당 한문교사 - 유치겸

유치겸은 한국 감리교 초기에 활동했던 본처 전도인(local preacher) 두 사람 중 하나였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배재학교에서 한문교사로 일하면서 방학 동안에는 지방으로 전도여행을 다녔다. 교회에서는 아펜젤러와 격주로 돌아가면서 설교하였으나 교회 사역에 대한 보수는 받지 않았다.

1888년 11월 25일에 면허를 취득한 현지인 설교자 둘이 있는데, 이번 연회에서 면허를 갱신했습니다...(중략) 나머지 현지인 설교자는 저희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며, 여름방학 기간에는 이 나라의 남부 지방을 여행했습니다.9)

9) We have two local preachers, licensed Nov. 25, 1888, and their licenses were renewed at the Annual Meeting this year.... The other local preacher teaches Chinese in our school, and during the summer vacation travel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ingdom(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291).

이 곳에 온 지 5년째인데, 소모임이 하나 조직되었습니다...(중략) 교회는 아직 설교자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곳의 현지인 설교자는 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치고, 주일에는 저와 번갈아 격주로 설교합니다.<sup>10)</sup>

이만열(1985: 328)은 이 보고서에 나타나는 전도사를 유치겸이 아니라 최병헌으로 본 반면, 한국감리교회의 역사를 저술한 유동식(2005: 88)은 이를 유치겸으로 보았다. 그러나 1888년 당시 최병헌은 선교사 존스의 어학선생으로 일하기 직전이었고, 기독교에 대한 의구심이 컸다. 그가 배재학당에서 한문을 가르친 것이 1889년부터이고 개종을 결심한 것은 1893년의 일이었으니(이만열 1985: 305), 1888년에 전도사이자 교사의 두 임무를 동시에 수행했던 사람은 최병헌이 아니라 유치겸이다. 이처럼 배재학당과 교회에서 선생과 전도자로 일했던 유치겸이 『훈오진언』을 한글로 번역했을 가능성도 있다.

유치겸을 번역자로 보는 견해의 설득력을 얻기 위해, 초기 감리교 선교부의 네트워크를 설명하고자 한다. 『훈오진언』이 출판된 시기의 감리교는 덕수궁 옆 정동에 위치한 배재학당과 이화학당, 정동제일교회를 배경으로 선교사들의 거주지와 활동 영역이 밀집해있었다. 아펜젤러는 배재학당의 교장이자 정동제일교회를 시무하는 담임목사였고, 스크랜턴 대부인은 그 옆에서 이화학당을, 대부인의 아들 스크랜턴 박사는 정동제일교회 앞마당에서 시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훈오진언』을 인쇄했던 삼문출판사는 1888년에 배재학당 지하에 공업부의 일환으로 설립되었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인쇄공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 수 있는 방안을 제공했다. 이처럼 정동을 배경으로 조밀하게 펼쳐진 감리교 선교사들과 한국인 신자들의 네트워크를 생각해볼 때, 배재학당 교사였던 유치겸이 삼문출판사에서 발행된 전도문서를 번역했으리라 추정해볼 수 있다.

10) It has been about five years since we came here and a circuit has been organized ... The preachers as yet do not draw any salaries from the congregation. Our local preacher here teaches Chinese in the school and preaches every other Sunday, alternating with me(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3: 273).

### 3. 영문 원본과 한·중 번역본 비교

번역자는 출발어(source language)와 도착어(target language)사이에서 발생하는 간극을 적절한 용어를 선택함으로써 연결한다. 특히 현지 문화에 없는 낯선 개념을 맞닥뜨릴 때, 번역자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거나 현지인들에게 익숙한 대응어를 차용해야 한다. 바로 여기서 도착화 여부를 추증할 수 있는데, 한국에 기독교가 도입되어 문화변용이 일어나는 과정을 이해하는 데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하다. 그러므로 번역자가 선택한 용어를 비교분석하면 번역자의 태도와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번역자는 또한 상황에 따라 원문의 내용을 삭제하기도 하고 역주를 달아 추가적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원문을 삭제하는 경우는 출발어 문화권의 관습이 도착어 문화권에 맞지 않으므로 굳이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여겨질 때 발생한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는 출발어 문화권의 낯설고 이질적인 부분을 현지어로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도울 때이다. 이렇듯 번역 내용의 가감을 통해서도 번역자의 태도와 역할을 평가할 수 있다. 『훈민정음』의 경우 영미권의 저술을 중화권에 소개하는 작업이었으므로 상당한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했을 것이다. 중국과 한국에서 번역자들이 각각 어떤 용어를 선택하고 내용을 가감했는지 분석하여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연결했는지 살펴보겠다.

#### 3.1. 용어 선택과 표현 방식

먼저 어휘를 비교한 결과 한역본은 중역본과 거의 비슷하며 천당, 천사, 마귀, 야소(예수) 등 조선의 기독교 어휘가 대부분 중국에서 전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중국어성경(文理譯 또는 The Delegates' Version)을 저본삼아 한글성경으로 번역할 때 복음, 세례, 독생자, 인자, 성령, 유월절 등의 용어가 전래되었던 점을 상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娘, 老子을 母親, 父親으로 옮기고 天父를 ‘천부’가 아닌 ‘하늘아버님’으로 풀어서 옮기는 경우도 볼 수 있다.

##### 3.1.1. 신 칭호

조선에서 신 칭호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때는 국내 선교사들이 한글성서를

번역하기 시작한 이후이다. 기독교의 유일신적 신관은 조선의 다신론적 신관과 매우 달랐으며, 기독교의 신이 기존의 숭배 대상이었던 영적, 정치적, 그리고 가족 내의 권위자보다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여 조선인이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다(Oak 2013: 33).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선교사들은 성경의 ‘God’을 번역할 때 현지의 신 칭호를 차용할 것인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낼 것인지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문제를 연구한 옥성득(1993)은 조선에서 벌어진 신 칭호 논쟁시기를 1893년부터 1911년으로 잡고 있다. 이 논쟁 전에 출판된 전도문서들은 신 칭호를 통일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번역하고 있는데, 한역본 『훈민정음』에서는 ‘하느님’을 주로 사용한 외에 ‘하늘에게신하느님, 하늘아바님, 하늘에게신아바님, 일위부친, 하늘에게신일위부친’으로 다양하게 표현했다.

중역본은 ‘하느님’에 해당하는 신 칭호를 神으로 통일하여 ‘天上那位眞神, 天父, 一位父親在天堂, 一位父親在天上’으로 표현했다. 중국 개신교 선교사들 사이에서 신 칭호에 대한 논쟁이 불거진 것은 1850년 대표자역본(The Delegates’ Version; 文理譯)이 나왔을 때였다. 영국 선교사들과 영국성서공회는 God의 대응어로 ‘上帝’를 주장했고,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성서공회는 ‘神’을 주장하며 대립하다가 결국 성경번역위원회가 분열되었고, 성경은 神版(미국성서공회)과 上帝版(영국성서공회) 두 가지로 출판되었다(송강호 2007: 153). 그 결과 미국인 선교사가 번역했던 중역본 『訓兒眞言』은 神을 사용했던 것이다.

특이한 점은 『훈민정음』의 중역본이나 한역본에서 동양 전래의 경어법인 ‘대두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두법이란 임금의 이름이나 신 칭호 다음에 한 칸을 띄어 쓰는 것이다. 이덕주(1995: 264)는 초기 개신교의 전도문서였던 『예수성교요령』과 『예수성교문답』에서 대두법이 쓰여 번역 과정에서 한국 개신교인들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그런 점에서 대두법이 쓰이지 않은 『훈민정음』은 예외라 하겠다.

### 3.1.2. 토착적 용어 사용

*The Peep of Day*의 중역본·한역본 용어를 비교해보면 중문을 한글로 번역할 때보다는 영어 원문을 중문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인 토착화 시도를 볼 수 있다. 중역본은 현지화 된 용어를 선택한 반면, 한역본은 중역본

의 용어를 거의 수용했다. 예를 들면 heaven을 도교적 의미를 지니는 천당(天堂)으로, house를 방(房)으로, bed를 요(炕)와 이불(被)로 번역한 것이다. 또한 영어 원문에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풀어주신 여러 가지 것들을 헤아려 보라 (Let us count them over)”로 쓰인 부분을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너-맛당히 즈세히 기록호야 닛지 말지니라(你應該仔細想一想. 不要忘記了)”라고 번역하고 있다. 구어보다는 문자와 기록문화가 발달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토착적 용어 사용

The Peep of Day	訓兒眞言	훈요진언
mother, father	娘, 老子	모친, 부친
a Father (in heaven)	一位父親(在天堂)	(하늘에 계신) 일위부친
heaven	天堂	던당
heavenly father	天父	하늘아바님
field	庄	던장
a house to live in	有房子你住	방이 잇서 네 머므르며
a bed to sleep in	有炕你睡, 有被你蓋	자리 잇서 네가 자며 니불이 잇서 네가 덮호며
Let us count them(which your heavenly Father has given to you) over.	你應該仔細想一想. 不要忘記了.	너-맛당히 즈세히 기록호야 닛지 말지니라

### 3.2. 영문 원본에 없는 내용이 추가된 부분

중역본과 한역본의 2, 3장에서는 영문 원본에 없는 부분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와 훈육방식,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 그리고 재앙과 질병에 대해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입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 3.2.1. 어머니의 훈육방식

영문 원본 *The Peep of Day*에서 묘사하는 어머니는 다정다감한 태도로 아

이에게 사랑을 베풀다. 반면,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아이에게 화내거나 때리는 모습이 아이를 위한 모친의 은정이라고 가르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다.

你曉得你母親待你好, 有時他生氣, 或者要打你,  
 너-뵘히 너의 모친이 너를 잘 디접하는 줄 아나니 때로 혹 너를 노히시며  
 너를 쓰리시니  
 是不是待你好, 也是待你好, 是恐怕你不能學個好人啊,  
 이 너를 잘 디접함이 아니냐 이 네가 능히 도흔 사름을 빙호지 못홀가 넘  
 려히십이니  
 你應該想念你母親, 這許多恩情, 常常孝敬他, 但是天上那位眞神,  
 너-맛당히 너의 모친의 이 허다흔 은정을 심각히여 홍상 효도하고 공경홀  
 거시오  
 不論你在甚麼地方。 甚麼時候。 他都保護你。  
 또 하늘에 계신 하느님은 너 잇는 어느 디방과 어느 때던지 모도 너를 보  
 호히시느니  
 他待你的恩情. 實在比你母親更大。  
 이 너를 디접하시는 은혜가 너의 모친보다 더욱 크시니  
 所以你應該跪下, 謝謝天父的恩情. 求天父可憐你。  
 이러므로 너-맛당히 하늘 아바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너를 불상히 녀이  
 심을 구하라11)

### 3.2.2. 아버지가 가계를 꾸리는 방식

3장에서 밖에 나가 일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영어 원문과 차이가 있었다. 원문에서 묘사하는 아버지는 들에서 옥수수를 기르고 탈곡하며, 양을 치는 일로 돈을 벌어들인다. 그러나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아버지가 벌어들인 돈이 “손재주를 써서 여기저기[돌아다니며] 천신만고 끝에 얻은 것이며, 아버지가 강과 바다를 건너며 장사를 하여 모은 돈”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你父親那裏來的這些錢呢,  
 너의부친은어디서돈을가져왔노

11) 본래 한역본에는 띄어쓰기가 되어있지 않지만, 여기서는 독자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띄어 썼음을 밝힌다.

是他種庄稼, 風裏雨裏, 熱汗直流掙的,  
 던장에곡식을심어바람이 불때나비 올때나더운땀을흘니고엿은바-오  
 是他要手藝, 這裏那裏, 千辛萬苦掙的,  
 손지조를빼여기더기천신만고하엿은바-오  
 是他做買賣, 南邊北邊, 漂江過海掙的,  
 장스롤하여남편북편에강에쓰고바다를지나엿은바-니라  
 他掙的錢, 拿來交給你母親說, 要給小孩兒置衣服穿, 買東西喫  
 그 엿은바 돈을 가지고와 너의 모친을 주며골으디 〇히를 위하야 옷술 지  
 어넉히고 음식을사먹이라하느니라

### 3.2.3. 하나님과 부모에 대한 은정, 은혜

『훈〇진언』의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모친이나 하늘아버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하여 감사할 때 恩情, 은혜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것을 헤아려보기 (count them over)보다는 ‘자세히 기록’하여 ‘잊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Let us think of the things which your heavenly Father has given to you.  
 天父待你有這樣大恩情.  
 하늘아버님이 너를 위하야 이곳치 큰 은혜를 주시니  
 Let us count them over.  
 你應該仔細想一想. 不要忘記了.  
 너-맛당히 즈세히 기록하야 잊지 말지니라 [밑줄은 필자 강조]

### 3.2.4. 재앙과 질병 강조

마지막으로,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아이에게 부친을 위해 기도하도록 가르치는 부분에서 재앙과 질병이 강조되고 있다.

You can pray to God to keep him alive.  
 所以你應該?下求神, 保佑你父親無災無病  
 하나님의 너의 부친을 위하야 지앙과 병이 업숨을 구하라

목숨을 잃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중국과 한국에서는 그 이유가 주로 재앙이나 질병이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1870년대 말

華北지방에서 재해와 흉년이 몇 년간 지속되어 수백만에 이르는 가난한 민중이 기근으로 아사했던 상황이 증역본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오순방 2015: 286). 조선의 상황도 이와 별 다를 것이 없었을 것이다. 20세기 초기에 내한했던 서양 선교사들의 관찰에 의하면, 조선의 어머니들은 아기가 아프면 나쁜 귀신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무당을 찾아갔다(신복룡 1999: 45). 그뿐 아니라 민간요법에서 비롯한 만병통치약(극단적인 경우 곰 쓸개와 뱀탕, 지네 분말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선교사는 “귀중한 생명이 그토록 많이 죽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조건에서 생존하고 성년기까지 성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는 기록을 남겼다(신복룡 1999: 45). 이처럼 조선과 중국에서는 재앙과 질병에 대한 필요가 긴급했고, 따라서 번역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더 강조하거나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 3.3. 영어 원문의 생략

#### 3.3.1. 부모와 아이의 친밀한 행동과 애정표현 생략

영문 원본에서는 어머니가 아기를 상냥하게 대하는 행동을 묘사한다. 아기가 울면 팔에 안아서 자장가를 불러주며, 아기에게 예쁜 것을 보여주어 웃게 만들고, 아기를 들어 올려 발을 움직이는 법을 알려주며, 키스하고 애칭을 부른다<sup>12)</sup>. 당시 중국이나 조선의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은 이와 달랐을 것이다. 적어도 조선 어머니의 육아방식은 영국이나 미국과는 달랐다. 교회사학자 이만열(1990: 140)은 개신교의 초기 전도부인에 관한 연구에서 당시 부녀자들이 봉건적 관습과 사회구조의 가장 저변에 위치했던, 가장 수난 받는 계층이었다고 평한다. 여인은 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했고, 그들의 일은 노예의 그것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이 어머니가 되는 나이 또한 매우 이른데, 12-16세에 결혼하여 시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며 낯선 시어머니의 관리 아

12) Your kind mother dressed your poor little body in neat clothes, and laid you in a cradle. When you cried, she gave you food, and hushed you to sleep in her arms. She showed you pretty things to make you smile. She held you up, and showed you how to move your feet. She taught you to speak, and she often kissed you, and called you sweet names(Mortimer 1856: 21).

래에 놓였다. 혹 신분이 높다 하더라도 육아는 어머니보다는 하녀의 몫이었다. 『훈민정음』이 번역되던 시기-19세기 말과 20세기 초기-의 조선을 관찰했던 서양 여선교사에 의하면 조선의 어머니는 아기를 등에 업고 집안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기를 친철히 좌우로 흔들거나, 때로 어린 누이들이 동생을 업고 돌보는데 길에서 놀거나 달릴 때면 불쌍한 아기들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바람에 등이 불구가 될 정도로 꼬였다(신복룡 1999: 36). 이처럼 중국과 한국의 모자관계와 육아법은 동시대 서양과 많은 차이를 보였고, 그 때문인지 영문 원본의 자상한 어머니상은 중역본과 한역본에서 생략되었다.

아버지와 자식 간의 행동에도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이 점은 번역에 영향을 미쳤다. 영문 원본에서 보이는 아버지는 밭에 나가서 쟁기질을 하면서도 종종 아이를 생각한다. 아이는 기다리던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반갑게 달려가 맞으며 난롯가에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아버지가 앉으면 무릎 위로 올라가 앉는다. 그러면 아버지는 의자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아이와 같이 식탁에 앉아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나누어 먹는다<sup>13)</sup>. 그러나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이처럼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이 생략되었다.

영국·미국과 달리 중국과 조선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효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질서와 복종적 예의범절을 강조하는 탓에 아버지와 자녀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웠다. 유교의 가르침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과 아우 등의 가족관계에서 상호성보다는 위계성을 더 강조한다. 따라서 가정에서 친애보다는 예를 다하여 윗사람을 공경할 것을 강조한다. 더구나 유교윤리에 따라 남녀노소간에 겸상을 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와 자녀들이 한 자리에 앉아 아침과 점심,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누어 먹는 장면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는 서양의 가정에서 가족 간에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고

13) While he is ploughing, he often thinks of you, and hopes that he shall find you a good child when he comes home. You are glad to see him, I know. Sometimes you run to meet him, you set a chair by the fire, and then you climb upon his knee. Sometimes he is too much tired to speak to you. Then you wait till he has had his supper... He lets you sit upon one of his chairs, or upon a little stool by his nice warm fire; and he gives you some of his breakfast, dinner, and supper(Mortimer 1856: 25).

부부 중심의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는 것과 많이 다르다. 『훈인』이 한글로 번역되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조선에서 사역했던 여선교사의 기록을 보자.

서양의 가문(family circle)과는 달리, 한국의 각 가족은 씨족의 일원으로서 혈연의 개별 구성원에 불과하다. 식사시간에 모든 식구들이 식탁에 모여 앉는 것을 볼 수 없다. 가정은 그의 사랑방에서 홀로 침묵과 더불어 조용히 식사를 하며... 가족의 모든 남자와 6-7세 이상의 사내아이들은 각자 자기 방에서 혼자 식사를 한다. 딸들은 부인들과 함께 안채에서 식사를 하는데... 남자들이 식사를 마치고 남은 것들을 먹는다(신복룡 1999: 35).

신분에 따라 차이는 있었겠지만 조선에서 가족에 대한 사고방식은 대체로 이와 같았고, 따라서 영문 원본에서 나타나는 친밀하고 격의 없는 부모자식간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결과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영문 원본에서 모자관계, 부자관계를 친밀하게 묘사한 부분을 생략한 것으로 보인다.

### 3.3.2. 신(God)을 주어로 하는 문장 생략

영문 원본에서는 신을 인격적인 모습으로 묘사하며 인간에 대한 신적 주권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중역본과 한역본에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몸을 만들고 부모를 주셨다”는 원문 문장을 생략하며 굳이 강조하지 않았다. 이는 인간의 삶 속에서 인격신이 주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유교적 문화권인 중국이나 조선에서 낯설게 여겨졌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기독교의 유일신적, 인격적 신이라는 개념은 중국이나 한국의 다신론적, 불가지론적(agnostic) 신 이해와 매우 달랐으며 따라서 이를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다(Oak 2013: 33). 앞서 3.1.1.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러한 개념의 차이는 성경 번역 시 신칭호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불거지기도 했다. *The Peep of Day*의 3,4장에서는 이 외에도 God(神)을 주어로 하는 문장이 총 7개 있는데(아래 표 참고), 중국어와 한글번역본에서는 모두 생략되었다.

〈표 3〉 『訓兒眞言』과 『훈오진언』에서 생략된 원문의 신(God) 주어 서술

2장	God sent you to a person who took great care of you when you were a baby.
	Then God made your little body, and he sent you to your mother, who loved you as soon as she saw you.
	It was God who made your mother love you so much, and made her so kind to you.
	God sent you to a dear mother, instead of putting you in the fields, where no one would have seen you, or taken care of you.
	God thinks of you every moment. If he were to forget you, your breath would stop.
	Would God hear your little thanks? - Yes, God would hear and be pleased.
3장	Perhaps your father may die, but God can keep him alive.

### 3.3.3. 문답식 서술 생략

1880년대에 출판된 전도문서들은 문답식 서술 형태를 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장원양우상론, 인가귀도, 묘축문답으로, 이러한 전도문서들의 문답체 양식은 근대 전환기 한국의 신문 논설과 소설에도 영향을 미쳤다(조경덕 2012: 515). 이처럼 『훈오진언』도 각 장의 시작마다 문답식 서술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영문 원본의 문답식 서술을 일부만 취하고 다른 부분은 상당수 생략하였다는 점이다(아래 표 참고). 옥성득(1999: 24)에 의하면 중국인과 한국인은 서양식의 기계적 질문과 답변 형식의 ‘교리문답(catechism)’보다는 전통적으로 두 사람 혹은 소수가 둘러앉아 대화를 통해 종교적 진리를 깨닫는 문답식, 대화식, 토론식 방법을 선호해 왔기 때문에 초기부터 천주교와 개신교의 전도문서와 교리서를 대화체로 발간하였다고 한다.

그렇다면 『훈오진언』에서 문답식 서술양식을 취사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서양식 교리문답과 동양의 문답식 서술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훈오진언이 중국과 한국에서 번역되는 과정상 생략된 문답식 문장은 동서양간 사유방식의 차이를 입증하는가? 옥성득은 이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근대전환기 서사양식에서 전도문서가 미친 영향을 분석한 조경덕의 논문을 보면 연구자들 간에 문답체를 구별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다. 김영민은 두 사람 이상의 인

물이 등장하여 일방적으로 묻고 답하는 문답체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논의하는 토론체로 구별하였고, 권보드래는 문답체와 대화체로 구별하면서 문답체는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활용되는 문체로, 대화체는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풍자의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구분하였다(조경덕 2012: 515-516). 문한별은 문답을 통해 사유의 과정을 보여주는 ‘설’양식과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통해 상대를 설득하거나 반박하는 형식을 구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훈오진언』 같은 전도문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자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표 4〉 『訓兒眞言』과 『훈오진언』에서 생략된 원문의 문답식 서술

2장	Was your body always as big as it is now? -No.
	What were you called when your body was very small? - A baby.
	Can babies talk, or talk, or feed themselves, or dress themselves? - No.
	But God sent you to a person who took great care of you when you were a baby. Who was it? Your dear mother...
	Is your mother kind to you still? - Yes, she is.
	Can your mother keep you alive? -No.
	Do you ever thank your mother for her kindness? - Yes.
	Will you not thank God who gave you a mother, and keeps you alive?
3장	Why does he bear all this(ploughing in the cold rain and heat)? - That you may have plenty of food, and be fat and rosy.
	Who made your father love you at first? - It was God.
	If your father were to die, what should you do? You would then be a fatherless child.
	Could your father die? -O yes; many little children have no father.
	But if God were to let your father die, you would still have one father left. Whom do I mean? what do you say in your prayer?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표 5〉 『訓兒眞言』과 『훈오진언』에서 생략되지 않고 번역된 원문의 문답식 서술

	<p>Do you love your mother? -Yes.                  我曉得你親他, 也應該親他                  지금너-너의모친을스랑흐느뇨스랑흐느니</p>
2장	<p>But who gave you a mother? -It was God who sent you to a kind mother.                  是誰給你這位母親, 教他這樣掛念你的冷熱, 掛念你的飢飽呢, 是神啊                  누-네게너의모친을주어 흐여곰이긋치너의차고더움을싱각흐며너의주리고빚부름                  을싱각흐게 흐엿느뇨하느님이시니</p>
3장	<p>Who is it that dresses you and feeds you? - Your dear mother.                  小孩兒啊, 誰做衣服給你穿, 做飯給你喫呢, 是你母親,                  으히들아누-가의복을지어너를넙히며밥을지어너를먹이느뇨이너의모친이니</p>
	<p>But how does your mother get money to buy the clothes, and the food?                  -Father brings it home.                  你母親那裏來的這布疋, 這糧食呢, 是你父親給他的.                  너의모친은어디셔봐와랑식을가져왔느뇨너의부친이주신바-니라</p>
	<p>How does your father get money? - He works in the field.                  你父親那裏來的這些錢呢, 是他種庄稼, 風裏雨裏, 熱汗直流掙的,.....                  너의부친은어디셔돈을가져왔느뇨년장에곡식을심어바람불때나비올때나더운땀을                  흘니고엿은바-오.....</p>
	<p>Can your heavenly Father die? -No, never.                  你的天父能死不能, 不能死.[也不會死]                  너의하늘아바님은은히죽으시느뇨죽지아니하시느니라</p>
	<p>Does he love you? -Yes.                  他愛不愛你, 愛你.                  너를스랑흐시느뇨스랑흐시느니라</p>

####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신교 초기 전도문서 『훈오진언』의 번역본과 원문의 비교 분석을 통해 중국과 한국의 번역자가 각각 어떤 태도로 번역에 임했는지 고찰 함으로써 선교사의 서술에서 배제된 중국 및 한국인 번역자의 역할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크랜턴 여사가 번역했다고 알려진 한글 전도 문서 『훈오진언』을 선택, 영문 원본 *The Peep of Day*와 중역본 『訓兒眞言』을

비교했다.

먼저 ‘누가 번역했는가’를 중심으로 중역본과 한역본의 번역자들을 소개했다. 기존에 한역본의 번역자로 알려진 선교사 메리 스크랜턴 뿐만 아니라 공동으로 번역에 참여했을 한국인 번역자의 행적을 파악하기 위해 선교사들의 사역 보고서와 서신을 조사했고, 한국 감리교교회사 서적도 참고했다. 이를 바탕으로 『훈민정음』이 외국인 선교사가 아닌 한국인에 의해 중역본 『訓兒眞言』을 저본(source text)으로 번역되었음을 제안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문 원본과 중역본, 한역본을 비교하여 각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를 분석했다. 이 때 비교의 대상은 용어선택과 표현방식, 그리고 영어 원문과 대조하여 본 번역본 내용의 가감이었다.

원본과 중역본, 한역본을 비교한 결과 번역자들의 번역 태도가 달랐다는 점을 발견했다. 먼저, 중역본 『訓兒眞言』의 역자로 알려진 샬리 홈즈(花撒勑)와 쩌우웬유안(周文源)은 단어 비교 분석에서 나타나듯이 적극적으로 역동적 등가(dynamic equivalents)를 찾으며 현지 문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거나 더하는 등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번역했다. 외국인 선교사가 전도문서를 번역하면서 이처럼 중국 현지에 맞게 각색할 수 있었던 것은 번역 작업에 있어서 토착인 공역자 쩌우웬유안의 역할이 컸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중국에 오래 체류하여 현지의 문화와 풍습, 가치관을 온전히 이해한 덕분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현지 문화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지의 풍습을 존중하는 태도가 이 같은 번역 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훈민정음』의 번역자는 상대적으로 소극적, 수용적인 태도로 번역에 임했다. 중역본 『訓兒眞言』과 비교했을 때 어휘나 표현에서 차이가 거의 없고, 내용에 있어서도 중역본을 거의 수정 없이 수용했다. 이러한 수동적 번역 태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述而不作”으로 대표되는, 한학자들이 한문 경전을 대할 때 보이는 보수적 태도 때문일 수 있고, 개신교 교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초기 한국 그리스도인이 번역을 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2, 3장 두 장만을 연구하고 내린 결론이므로 이 같은 주장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이 『훈민정음』 전체 텍스트에 적용되는지 연구 범위를 확장하여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는 여러 한계가 있다. 연구 범위가 『훈민정음』의 일부에 그친다는 점, 한역본의 번역자를 확정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는 점, 연구 대상이 번역자와 번역본 분석에 그친 점이 그러하다. 향후 이러한 전도문서가 개화기 조선의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그 활용도와 영향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초기 전도문서의 용어 선택에 있어서 로스역 성서와 한문 성서(文理譯)와의 관계를 비교·분석할 필요도 있다.

### 참고문헌

-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사위원회(2002) 『한국 감리교 인물사전』, 서울: 기독교대한 감리회.
- 대한성서공회 (1994) 『대한성서공회사 (1)』, 서울: 대한성서공회.
- 류대영 (2001)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 1884-1910』,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류대영 (2004)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제국주의 침략, 개화자강, 그리고 미국 선교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박홍규 옮김 (2005) 『문화와 제국주의』, 서울: 문예출판사.
- 송강호 (2007) 『중국어성경과 번역의 역사』, 서울: 모리슨.
- 신복룡 옮김 (1999) 『한국의 아동생활』, 서울: 집문당.
- 오순방 (2015) 『19세기 동아시아의 번역과 기독교 문서선교』,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국.
- 육성득 (1993) 『초기 한글성경 번역에 나타난 주요 논쟁 연구(1877-1939)』, 장신대 석사학위논문.
- 육성득 (1999) 「초기 한국 북감리교의 선교 신학과 정책: 올링거의 복음주의적 기독교 문명론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와 역사』 11: 7-40.
- 유동식 (2005)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1884-1992』, 서울: KMC.
- 이경숙, 이덕주, 엘렌 스완슨 (2010) 『한국을 사랑한 메리 스크랜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이덕주 (1995) 『초기 한국 기독교사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2014) 『스크랜턴: 어머니와 아들의 조선 선교 이야기』, 서울: 공옥출판사.
- 이만열 (1985) 『아펜젤러: 한국에 온 첫 선교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1990) 「勸書에 관한 연구」, 『동방학지』 65: 77-173.
- (2013) 「한글어 성경 번역의 초기 역사와 한국 교회」, 『장로교회와 신학』 10: 6-24.
- 정길남 (편저) (1996) 『開化期 國語資料集成: 성서문헌편 8권』, 서울: 박이정.
- 조경덕 (2012) 「근대 소설사에서 한글 전도문서의 위상」, 『현대소설연구』 50: 511-535.
- 조예녹 (2016) 『초기(1890년대) 한글 전도문서에 나타난 기독교 이해』, 감리교 신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효은 (2016) 「근대 기독교출판번역사 조사: 번역주체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7(2): 191-212.
- (2017) 「번역가 연구: 유형기, 본격 기독교 번역자」, 『번역학연구』 18(2): 229-253.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2009) 『한국 기독교의 역사 (1)』, 서울: 기독교문사.
- Cathcart, William (ed.) (1881) *The Baptist Encyclopedia*, Philadelphia: Everts.
- Lai, John T.P. (2015) *Negotiating Religious Gaps: The Enterprise of Translating Christian Tracts by Protestant Missionaries in Nineteenth-Century China*, Sankt Augustin; Institut Monumenta Serica.
- Mortimer, Favell Lee (1845) *The Peep of Day*, NewYork: John S. Taylor.
- Noble, Mattie Wilcox (1927) *Victorious lives of Early Christians in Korea*, Seoul: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Oak, Sung-Deuk (2002) *The Indigenization of Christianity in Korea: North American Missionaries' Attitudes Towards Korean Religions, 1884-1910*, Massachusetts: Boston U.
- Oak, Sung-Deuk (2013) *The Making of Korean Christianity: Protestant Encounters with Korean Religions, 1876-1915*, Waco: Baylor UP.
- Ohlinger, Franklin (ed.) (1892) *The Korean Repository*, Seoul: The Trilingual Press.

Scranton Ginyeomsaeophoe (ed.) (2010) *Letter of William Scranton, 1885-1907*, Seoul: Hanguk Gidokkyo Yeoksa Yeonguso.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ed.) (1993) *Annual Report of 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Korea Mission, 1884-1943*, Seoul: Hanguk Gidokkyo Yeoksa yeonguso.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unknown) *Annual Report of the Woman's Foreign Missionary Society of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1885-1940*, Seoul: Hanguk Gidokkyo Yeoksa Yeonguso.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2010) *Methodist Episcopal Church Missionary Correspondence 1846-1949 (Korea)*, vol.3, Seoul: Hanguk Gidokkyo Yeoksa Yeonguso.

花撒勅, 周文源 (1882) 『訓兒眞言』, 上海: 美華書館.

[Abstract]

**A Comparison of Chinese and Korean Translations of *The Peep of Day*:  
focusing on the translators and their attitudes in translating the  
evangelical tract in the 19<sup>th</sup> century**

Lee, Goeun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This study is an attempt to shed light on the local translators' role that had been marginalized by missionaries in translating an English evangelical tract, *The Peep of Day* (1833), by comparing it with its Chinese and Korean translations. In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the Chinese and Korean translators were introduced including those who are presumed to have participated in the translation behind the scene. For this, missionaries' reports, correspondence, and Korean Methodist history books were researched. In so doing, it was suggested that the Korean translation was not translated by a missionary but by a Korean, contrary to the previous assumption. In the second part of the paper, chapters two and three from the translations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source text to see "What was the translators' attitude like." The subjects of comparison were the translators' choice of words, addition and omission of the source text. As a result of this comparative analysis, the followings were discovered: 1) Chinese translators were more active in indigenizing the tract, choosing indigenous expressions and selectively omitting or adding to the source text; 2) the Chinese translation was the source text of the Korean translation; 3) Korean translators were not as active in indigenizing the tract as the Chinese counterparts but almost accepted the Chinese translation as the source text. However, further analysis may be required to confirm whether these discoveries hold true in the whole text.

▶ Key Words: The Peep of Day, missionary translation, evangelical tracts, indigenization, Protestantism

이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2bthebridge@gmail.com

관심분야: 한국개신교사, 문화간 소통, 기독교 번역과 출판

논문투고일: 2017년 10월 30일

심사완료일: 2017년 12월 12일

게재확정일: 2017년 12월 13일